

## 中, 2017년 1분기 해외 M&A 감소와 배경

오윤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

### 주요내용

- (현황) 2017년 1분기 중국 기업의 해외인수합병 규모와 건수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함.
- (원인과 분석) 2017년 1분기 중국 M&A가 급격히 감소한 내부적 요인은 중국 정부의 자본유출 규제 및 해외투자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볼 수 있음. 또한 중국 M&A 감소의 외부적 요인으로서는 해외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인수합병 대상국가 정부와 기업의 대중국 M&A 제재 강화 등을 꼽을 수 있음.
- (전망과 시사점) 2017년 중국 M&A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대일로 전략 및 중국제조 2025, 인터넷 플러스 등 투자 확대 유인이 존재하여 큰 폭의 감소세가 장기적으로는 지속되는 않을 것으로 평가됨.

### 1. 이슈 현황

#### ■ (현황) 2017년 1분기 중국 기업의 해외인수합병 규모와 건수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함.

- 지금까지 최근 발표된 PwC 보고서<sup>1)</sup>에 따르면 1분기 중국의 해외 M&A 거래건수와 규모는 각각 142건과 21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9%, 77%씩 감소함.
  -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역시 2016년 2분기를 정점으로 하반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.
-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6년 1, 2분기에는 유럽 기업에 대한 M&A가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나 3분기 급격히 비중이 감소한 이후 2017년 1분기에도 거래가 위축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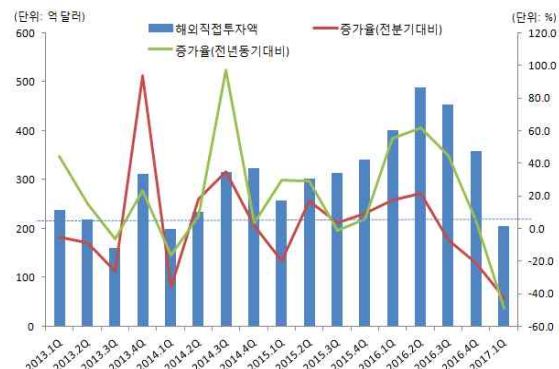
1) PwC(2017), 2016年和2017年第一季度中国大陆企业海外并购市场回顾与前瞻.

그림 1. 중국의 해외 M&amp;A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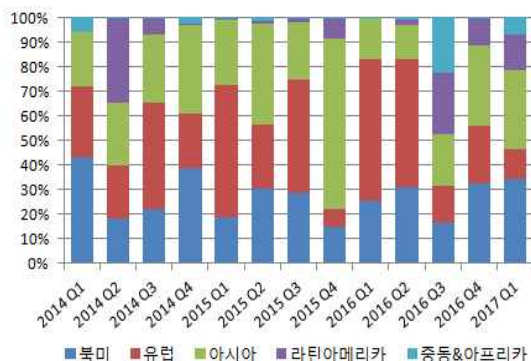
자료원: PwC(2017)

그림 2.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변동 추이



자료원: CEI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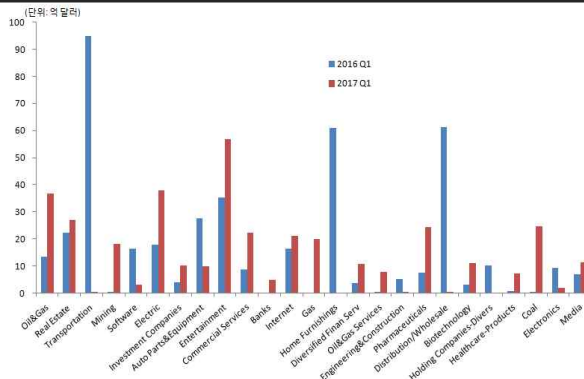
그림 3. 중국의 해외 M&amp;A 지역별 비중



자료원: Bloomberg

주: 지역별 M&amp;A(제안, 진행, 완료) 규모 기준임.

그림 4. 중국의 해외 M&amp;A 주요 업종



자료원: Bloomberg

주: 주요 분야별 M&amp;A(제안, 진행, 완료) 규모 기준임.

## 2. 원인과 분석

■ (내부적 요인) 2017년 1분기 중국 M&A가 급격히 감소한 내부적 요인은 중국 정부의 자본유출 규제 및 해외투자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볼 수 있음.

□ 중국정부는 급격한 외환보유액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자본유출을 제어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함.

- 2014년 약 4조 달러 가깝게 늘어났던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2016년 말 약 3조 2천억 달러 대로 감소했고 2017년 1월에는 3조 달러 이하로 떨어지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자본유출 및 외환관리 감독 방안을 강화함.

□ 또한,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규제 및 관리·감독 강화와 관련하여 해외투자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.

- 2016년 11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, 인민은행, 외환관리국 등 4개 부처는 공동으로 중국 기업

의 해외투자에 대한 심의 강화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

-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기업의 1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해외인수합병 추진 통제, 핵심전략사업과 무관한 외국기업이나 부동산에 대한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금지 등 관리·감독 강화 조치를 연이어 발표함.
- 불량자산 투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면서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유기업 해외투자와 관련한 규제 및 관리 지침을 만들 계획을 밝히기도 함.<sup>2)</sup>

■ (외부적 요인) 중국 M&A 감소의 외부적 요인으로서는 해외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인수합병 대상국가 정부와 기업의 대중국 M&A 제재 강화 등을 꼽을 수 있음.

□ 2016년 4분기부터 세계 정치·경제적 구조의 변동으로 인해 불확실성 요소가 늘어나는 상황임.

□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, 호주, 독일 등 중국의 주요 M&A 대상국의 정부와 기업은 중국의 M&A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피인수 국가의 중국 기업 M&A에 대한 태도 변화가 발생함.

- 미국, 독일, EU 등은 중국의 핵심기술 확보를 겨냥한 M&A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6년에는 총 2,200억 달러의 중국 기업 M&A 중 400~750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가 취소·철회됨.<sup>3)</sup>
- 대표적인 예로 독일 정부는 안보 및 기술유출 문제를 이유로 들어 중국 푸젠 그랜드칩 투자펀드(FGC)의 독일 아이스트론(Aixtron) 인수 계약에 대한 승인 철회 및 재심사 진행을 결정했으며, 호주와 미국 역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각 중국 및 홍콩 기업과의 인수합병 계획을 취소함.

### 3. 전망과 시사점


■ (평가와 전망) 2017년 중국 M&A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대일로 전략 및 중국제조 2025, 인터넷 플러스 등 투자 확대 유인이 존재하여 큰 폭의 감소세가 장기적으로는 지속되는 않을 것으로 평가됨.

□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라 에너지, 원자재, 항공 및 인프라, 공공시설 등의 산업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M&A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.

□ 아울러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2025 및 인터넷 플러스 등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기술 및 브랜드 확보를 위해 중국 기업의 고급산업제품, 하이테크 산업, 신에너지 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.

2) 经济参考报(2017), "国企改革将实行清单式监管"

3) Bloomberg Markets(2017), "Chinese M&A Scrutiny Helped Void Up to \$75 Billion in Deals"

- 그러나 자본 유출 통제에 따른 기업의 해외투자 규제 강화, 실효성 있는 투자 선별 추진, M&A 대상국 정부 및 기업의 방어 강화 등의 직면과제로 인해 지난 2년간의 높은 M&A 성장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국가안보 및 핵심·첨단 기술의 유출 방어를 위한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對중국 해외 M&A 견제 및 규제 강화는 향후 중국의 해외 M&A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와 관련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 

#### 참고문헌

- CEIC, Bloomberg, 证券时报网, 新华网, 中国贸易新闻网, 中国金融商报网, 经济参考报, PwC 등

#### 알립니다

-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